

세종~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 
'고덕대교' 결정 촉구 결의안  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63명이 발의한 「세종~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'고덕대교' 결정 촉구 결의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리며,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

□ 현재 「세종~포천 고속도로」 안성~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 구간에 한강횡단교량이 건설중에 있습니다. 그러나 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'지역정체성'이 아닌 '지역 안배' 명목을 앞세운 정치적 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
□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'고구려대교'를 제3의 대안으로 교량 명칭을 검토하고 있으나, 강동구는 백제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으로 '고구려'는 강동구와는 어떠한 역사적 맥락

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

- 이미 해당교량은 한국도로공사와 교량 건설업체 및 설계용역업체가 ‘고덕대교’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언론·서울시민·경기도민에게 각인된 상태로 현시점에서 교량의 명칭을 달리 사용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.
- 결의안에는 교량의 명칭이 ‘고덕대교’가 되어야만 하는 6가지 근거를 담았습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심의·결정권자인 한국도로공사 「도로공사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」 및 국토교통부 「지명심의위원회」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